

물도 아껴써야 환경이 산다

한 때 산 좋고 물 좋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깨끗한 물이 지천으로 많아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심각한 물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최근 식량위기와 함께 이 물 기근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인류의 생존은 물론 사회의 모든 생산활동과 직결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대책 논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그동안 무분별하게 생수·지하수를 개발하고 강과 바다마저 각종 오염원에 방치시킨 결과 벌써부터 물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은 생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필수적인 물질로, 동·식물 구성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몸도 전체의 70~90% 정도가 물이다. 인간의 몸은 물이 1~2% 정도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정도가 부족하면 거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 정도가 부족하

면 생명을 잃게 된다.

월드워치 연구소는 '전세계 주요 경작지의 대부분이 지하수를 과다하게 뽑아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콕의 경우 지난 20년간 땅이 연평균 5~10cm씩 가라앉았다고 한다.

미국 지구용수정책계획(GWPP)은 지구의 2/3가 물이지만 거의가 식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짙물이고, 담수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담수의 2/3는 빙산에 갇혀 있어 30년 뒤에는 세계가 심각한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물 문제가 심각해 진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질 오염으로 인해 식수 등으로 사용 가능한 물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거기에도 무분별하게 끌어올린 지하수의 고갈은 단순히 물 부족 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땅덩어리 자체의 존재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론을 통해 무수히 접했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수질은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수돗물의 중금속 오염(89), 트리할로메탄 검출(90), 낙동강 폐늘 파동(91), 서울시 정수장 세균오염(93), 낙동강 및 영산강 암모니아 파동(94) 등등의 보도는 이제 너





무나 일상적으로 들릴 정도로 전국의 수질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와 같은 물의 오염은, 바로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수도물과 연결되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상수원이 고갈되고 오염되자 무작위적인 지하수 개발이 성행하고 있고, 이것은 오히려 많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무리하게 뽑아낸 지하수로 인해 물 고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국민이 아주 소극적이지만 생활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절약하는 일과 수질오염의 원인 중의 하나인 생활하수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즉 수도물을 절약하는 일은 수자원 고갈을 겪는 지역

에서는 수자원을 나누어 쓰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수도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의 정수시간에 여유를 줌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조금이라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작은 실천들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물 기근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하수 처리 시설의 보강과 효율적인 물의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지하수의 보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의 소비는 문화생활의 척도가 될 만큼 생활의 편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의 절약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물 사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수도물 절약 효과를 유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이제 우리는 물 절약도 환경보전의 한 방법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물이 자원이나 에너지와는 무관한, 그저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수도물로 세차를 하고 수도꼭지를 하루종일 틀어 놓은 채 청소·세탁·세수·설거지 등을 한다.

전기료가 수도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을
잇는다.

청소를 하거나 세탁을 할
때 필요한 물만 받아서 사용
하고 수도꼭지가 새면 수도
꼭지의 고무패킹을 새 것으
로 바꾸는 작은 관심이 바로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
약하는 일이다.

1. 수도물을 아껴쓰자

수돗물을 10%만 아껴 쓴
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240
억원의 비용이 절약된다고
한다. 수도꼭지는 절수형 수
도꼭지를 사용하고, 꼭지를
꼭 잠궈 물이 똑똑 떨어지지
않게 하며 물을 틀어 놓은 채
설거지를 하지 말자.

설거지를 할 때 통에다 받
아서 하면 20ℓ로 충분했을
물이 마냥 틀어놓을 경우 그
6배인 160ℓ 나 든다.

목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다. 보통 가정집 욕조는
한번에 130~200ℓ의 물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5~10분 가량의 샤워에 익숙
해진다면 약 70ℓ의 물을 줄
일 수 있다고 한다.

세수를 할 때는 세면대 코
크를 꼭 막고 물을 세면대의
70%정도만 받아 사용하며,
수도를 틀어놓고 씻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 양치질은 컵을 사용하자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사용
하면 3~4컵의 물이면 충분
하지만 3분간 수도를 틀어놓
고 양치질을 하면 40ℓ의 물
이 낭비된다.

3. 면도도 물을 받아서 하자
면도를 할 때도 3~4ℓ면
충분할 것을 수도를 틀어놓고
하면 40ℓ의 물이 낭비된다.

4. 수세식 변기 물받이통 속
에 병을 넣어 사용하자

수세식 변기의 경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5~20ℓ
의 물이 소비되지만, 1.5ℓ의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물을 가
득 담아 변기 물탱크 속에 넣
어두면 사용할 때마다 1.5ℓ
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양은 한 가정에서 1년
에 10,950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 나라 전
체를 따진다면 연간 3천 6백
만톤의 수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되며 돈으로는 무려 76
억원에 이른다.

5. 세탁기 사용을 지혜롭게
세탁기에 빨래를 넣기 전
에 물에 담가 놓았다가 한 통
이 다 차면 세탁기를 작동시
키자. 세탁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며 때도 더 잘 빠진다.

6. 중수도 시설을 적극 추진
하자

중수란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린 물을 걸러서 공업용과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족한 수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비록
설치 당시는 많은 돈이 들어
가지만 설치를 해 놓으면 장
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형건물과 인
구밀집 지역부터 중수도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자.

7. 세차할 때 호스를 사용하
지 말자

세차할 때 호스를 이용하
면 140ℓ 정도의 물이 소요
되나, 양동이와 스폰지를 이
용하면 50ℓ로도 충분하다.

8. 세제는 되도록 천연세제
를 사용하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
방용 화학세제에 들어 있는
인산은 강과 하천에 공기방
울을 만들어 물 속의 산소공
급을 차단함으로써 물을 썩
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의 원료가 천
연식물성이라면 하천의 오염
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샴푸, 린스 같은 합성세제
는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비누를 이용해
머리를 감으면 처음에는 좀
뽀뽀하지만 식초 한두방울을
떨어뜨려 행구면 머리결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또 합성세제를 사용할 때
는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참
고하여 필요한 최소량만 사
용하도록 하자.

9. 쓰고 남은 기름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지 말자

쓰고 남은 기름 500ℓ를
하수구에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로 희석시키
려면 300ℓ들이 가정용 욕
조가 330통이나 필요하다.
쓰고 남은 기름은 천이나 휴
지, 신문지 등으로 닦은 뒤
설거지를 하거나 모아두었다
가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사

용하자.

10. 쌀뜨물은 화초나 나무에 뿌리자

쌀뜨물을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로 희석시키려면 8ℓ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초나 나무에 주면 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11. 음식찌꺼기를 버릴 때는 오염을 생각하여 남기지 말자

음식찌꺼기를 개수대에 버리면 물이 오염되므로 물기를 제거하여 화단에 매립하거나 규격봉투에 버리자. 또 음식찌꺼기 분쇄기(디스포저)를 사용하면 하수구의 막힘은 없을지 몰라도 수질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화장품을 과용하지 말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너무 진한 화장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기도 하다.

13. 야외에서 취사를 하지 말자

야외에 나갈 때는 되도록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야외에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고 꼭 챙겨오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경우 분해가 빨리 되는 비누를 이용하고, 설거지한 물은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도록 한다.

14. 욕조나 타일을 닦을 때는 락스 대신 소다수를 사용하지

15. 유리 및 거울 청소는 에어로졸 스프레이보다는 식초를 이용하지

16. 어린이들의 대소변은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지

17. 뉘시할 때 되도록 땀뻘을 쓰지 말자

18. 강가나 개울가에서 세차를 하지 말자

19. 자동차 폐유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

20.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

우리가 무심코 버린 조그만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회복시키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간장 15ml를 희석시켜 맑은 물로 만들려면 가정용 욕조 300ℓ 들이 1.5통이 필요하고 정종 20ml에는 27통, 쌀뜨물 2ml에는 40통, 된장국 200ml에는 4.7통, 라면국물 300ml에는 5.3통, 마요네즈 10ml에는 8통, 우유 200ml에는 100통, 오징어국물 500ml에는 250통, 폐식용유 500ml에는 무려 3,300통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해야 한다.

1) 먹다 남은 정종은 멸치 비린내를 없애주는 속성이 있으므로, 모아 두었다가 멸치국물을 낼 때 조금씩 넣는다.

2) 김빠진 맥주는 전골이나 불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비듬 제거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요리에 사용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린스 대용으로 활용한다.

3) 남은 우유는 장롱, 소파, 가죽 등의 패를 빼는데 아주 좋고 화초에 거름으로 줘도 된다.

4) 무공해 비누 만드는 법 : 가성소다(양젓물) 175g을 물 330cc에 녹여 폐식용유 1.2ℓ를 섞은 다음 백백할 때까지 30분 정도 짓는다. 우유팩에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빨래비누로 사용할 수 있다.

5) 무공해 세제(부엌용) 만드는 법 : 폐식용유 2.7ℓ에 식은 밥 한공기를 넣고 80℃까지 데운다. 불에서 내려놓은 다음 가성소다 450g을 넣고 나무주걱으로 서서히 20분 정도 짓는다. 끓는 물 0.5ℓ를 넣고 밥알이 다 없어질 때까지 천천히 짓는다. 이틀에 한번씩 네 번 반복한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3주일간 놓았다가 사용하면 된다. [2]

<자료: 환경운동연합, 월간 상품정보>